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17호 【누계 제25360호】 주제 105 (2016)년 8월 4일 (목요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지도 밑에 조선인민군 제3차 오중흙 7련대칭호 쟁취운동열성자대회가 진행되었다

전체 인민군장병들이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혁명적
당군의 불패의 위용을 만방
에 떨쳐나가고있는 시기에
조선인민군 제3차 오중흙
7련대칭호쟁취운동열성자
대회가 혁명의 수도 평양에
서 진행되었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전군에
오중흙 7련대칭호쟁취운동
의 불길을 지펴주신 20년
이 되는 뜻깊은 해에 소집
된 이번 대회는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명군업적
을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이며 근대중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 전군
김일성-김정일주의의 화의
기치높이 모든 부대들을
항일의 7련대, 전화의 근위
부대로 튼튼히 준비시키
는데서 획기적인 전환의
계기로 된다.

8월 2일과 3일에 진행된
대회에서는 조선인민군
제2차 오중흙 7련대칭호
쟁취운동열성자대회 이후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산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의도를 받들고
근대중운동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
교훈들이 분석총화되었으며 혁명무력
강화의 최전성기가 펼쳐지는 력사적
시기의 요구에 맞게 전군에 대중운동
열성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나가는
데서 나서는 파급과 방도들이 토의되
었다.

대회에는 각급 부대들에서 오중흙
7련대칭호와 근위칭호, 3대혁명붉은기
를 쟁취한 단위의 모범적인 지휘성원
들과 군인들, 근대중운동발전에 기여한
공로있는 일꾼들이 참가하였다.

대회장인 4.25분회회관은 무척
수령감사용위정신, 열렬한 김정은동지



황병서동지, 리명수동지,
박영식동지를 비롯한 조선
인민군 지휘성원들과 대중
운동에서 모범적인 일꾼들,
군인들이 주석단에 자리잡
았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개회사를 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는 전당, 전군, 전민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위대한 목표를 향한
전인민적투쟁군을 힘있게
번리며 날에날마다 세인을
놀래우는 영웅신화를 끊임
없이 창조해나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조선인민군
제3차 오중흙 7련대칭호
쟁취운동열성자대회를
진행하게 된대 대하여 언급
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는 오중흙 7련대칭호쟁취
운동은 위대한 김정일동지
의 당군건설명도업적이
깃들어있는 우리 혁명무력
의 고귀한 유산이며 군력
강화의 만능의 보검이라고
강조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는 조국의 최전방에서 당과 혁명, 시대
가 부여한 성스러운 사명과 임무에
무한히 충실하고 우리 혁명무력의
정치사상적, 군사기술적위력을 백방으
로 강화하는데 공헌한 대회참가자들과
전체 인민군장병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전투적경례를 드린다고 뜨겁게 말씀
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중시하시고 이끌어오신
근대중운동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
군력강화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는것
은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며
결심이라고 강조하시었다.

주의로 심장의 피를 편편 끓이는 사상
과 신념의 지인, 천적간첩의 성세, 방패
가 되어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사수해갈 전체 참가자들의 드
높은 혁명적열정으로 용암마냥 끓어번
지고있었다.

대회장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정중히 모셔져
있었다.

항일혁명선렬들의 수령결사용위정신
이 백동치는 오중흙 7련대기발과 무적
의 최정예혁명강군의 현대적인 무장장
비품, 《결사용위》라는 글발이 형성된
주석단배경에는 오중흙 7련대영예회장

모형과 《조선인민군 제3차 오중흙 7련
대칭호쟁취운동열성자대회》라는 글발이
걸려있었다.

주석단에는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군기들이 세워져있었
으며 명예위병들이 서있었다.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항도자인 조선로동당 만세!》, 《영광
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 만세!》라는 구호들이 대회장에
나붙어있었다.

또한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
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오중흙 7련대칭호쟁취
운동과 근위부대운동을 힘있게 벌려
모든 부대들을 항일의 7련대로, 전화의

근위부대로 만들자!》라는 구호들이
나붙어있었다.

원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대회주석단에 나오
시었다.

순간 전체 대회참가자들은 철저적인
예지와 비범한 명도, 태양의 열과 정으
로 주체적근대중운동의 위대한 력사와
전통을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이시
며 군력강화의 최전성기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우러러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을 리쳐올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2 면 으 로 계 속

